



그레고리오 성가 악보

교회 음악이란 무엇 일까요?

교회라는 용어가 그리스도교 회의 전용 용어라고 할 때 교회정신 안에서 지어지고 또 연주되는 모든 음악 곡들을 교회음악(Church Music)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와 비슷하며 또 구분되어야 할

말이 있으니 “전례음악(Liturgical Music, 성음악 Sacral Music, Musica sacra)”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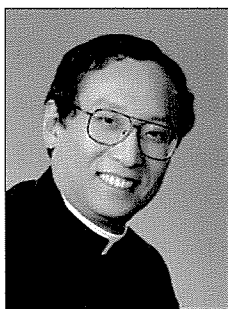
이 용어의 규정은 좀 까다롭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전례현장을 반포하면서 그 속에서 성음악에 관하여 새로운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행세칙으로 성음악에 관한 훈령(1967년 3월 5일)을 내었는데, 거기서 성음악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성음악이란 하느님께 예배를 올리는 식전을 위해서 작곡되고 신성과 우량성을 지닌 양식의 음악을 말하는 것이다.” 또 “성음악은 아래와 같이 이해되고 총괄된다. 즉 그레고리오 성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전 및 현대의 종교적 다음곡(多音曲)들, 파이프 오르간과 전례

안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그 밖의 악기들을 위한 교회음악, 그리고 또한 전례적이며 신심적인 대중노래(Choral) 등이다.”라고 전례음악에 속하는 분야들을 상세히 지정하였습니다. 이 말마디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성음악이 과연 무엇인가가 확실해집니다. 요약하면, 교회음악은 보다 넓은 뜻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작곡된 모든 음악 곡들을 포함하지만, 전례음악(성음악)은 하느님께 예배를 올리는 식전 즉, 전례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애초부터 연주회를 목적으로 작곡되었다든지 일반 기도모임이나 혹은 신자 단체의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들은 교회음악에는 들어가지만 성음악은 아닌 셈입니다.

본 란에서는 물론 폭 넓게 교회음악을 다루어 보지만 그래도 전례음악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음악사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오직 전례음악만이 존재하였고 전례와 무관한 교회음악 곡들은 바로크 시대에 오면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나타난 흔히 복음성가(생활성가)라고 하는 대중음악 분야도 사실은 비전례적이어서 오직 교회음악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나 취급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례는 무엇이며 전례음악은 무엇입니까?

전례는 교회의 공식적 기도로서 구체적으로는 미사와 성



백 남 용(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 대학원장
평화방송 '교회음악으로 초대'
진행 및 해설

교회음악 산책의 첫걸음

교회음악은 보다 넓은 뜻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작곡된 모든 음악 곡들을 포함하지만, 전례음악(성음악)은 하느님께 예배를 올리는 식전 즉, 전례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애초부터 연주회를 목적으로 작곡되었다든지 일반 기도모임이나 혹은 신자 단체의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들은 교회음악에는 들어가지만 성음악은 아닌 셈입니다.

무일도와 기타 성사집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시 전례음악은 이 전례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그 전례 중에 부르게 하던 곡들을 뜻합니다. 현대 성사들은 미사 중에 성대하게 거행되지 않고 조용하게 거행되는 경우(예컨대 병자 성사나 고백성사들처럼)에는 노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결국 전례음악은 오로지 미사음악과 성무일도음악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보물창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악들은 몇몇 예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미사음악 아니면 성무일도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인 기도문들은 다 그 해당 전례의 기도문들이지 별도로 만든 자유로운 창작가사는 없습니다.

미사음악 곡들은 제목으로 보아 쉽게 구분됩니다. 우선 큰 제목으로 “○○○ 미사곡”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자비송(Kyrie), 대영광송(Gloria), 신경(Credo), 거룩하시도다(Sanctus와 Benedictus),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 등의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사 통상기도문 외에도 때로는 미사 고유기도문인 입당송(Introitus), 봉헌송(Offertorium), 영성체송(Communio) 등이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좀 드물게는 화답송이나 복음 전 환호(Alleluia)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로 된 미사곡들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미사곡 가운데 좀 특이한 것

으로 위령미사곡(Requiem)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무일도 곡은 애호가들에게도 좀 낯섭니다. 그래도 제목이 직접 “저녁기도(Vesperas)”라고 붙어있는 곡도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모릿트들은 성무일도에 나오는 시편의 후렴구(Antiphona)나 혹은 찬미가(Hymnus)들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 즈가리아의 노래(Benedictus Dominus), 시므온의 노래(Nunc dimittis), 사은 찬미가(Te Deum) 등은 대표적인 성무일도음악입니다. 그 밖에도 끝기도 끝에 부르는 4개의 성모찬송가(Salve Regina, Alma Redemptoris Mater, Ave Regina coelorum, Regina coeli) 등도 유명합니다. 통고의 성모(Stabat Mater)는 성무일도에서도 나오고 미사곡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미사음악이나 성무일도음악들은 그 작곡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같은 가사(기도문)를 가지고 작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이나 슈베르트의 “독일 미사곡”처럼 전례곡의 형식에서 벗어난 특별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토리오나 칸타타들은 일종의 극음악(劇音樂)으로서 전례와는 상관없이 쓰여서 전례음악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음악이라는 커다란 개념 안에 담아 둘 것입니다. 🐦

